

# 광주 산하기관 원장·직원 채용 부적정 무더기 적발...14명 징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비엔날레재단...주의 9건·개선 3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광주시체육회·광주비엔날레재단’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원장·직원 등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광주시가 공개한 제6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

르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광주시체육회·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원장·직원 등을 부적정하게 채용해 주의 9건·개선요구 3건의 행정처분, 문책 4명·경고 3명·주의 7명

등 총 14명이 신분상 조치됐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응모자가 서류 접수 마감 이틀 지난 뒤 자신의 일부 서류 교체를 요구했다. 담당 직원 A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B실장은 “응모자의 요구대로 서류를 교체해 줄 것”을 부당하게 지시했다. 또 직원 채용과정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권고됐다. 광주시체육회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은 전문체육지도자 채용시험에서 불

합격한 지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한 뒤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경계 이상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체육종목 지도자 채용과정에서의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면접 심사에 참여 할 외부위원은 2회 연속 선정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56명의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재단 측은 “채용 가능 나이(18-60

세)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면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웠다”고 해명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를 판단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은 ‘인사규칙·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을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 권고됐다. 서선욱기자



## 겨울철 캠핑장 소리없는 암살자 ‘일산화탄소’...주의점은?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 삼가야

겨울철 캠핑을 떠났다가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데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 114건으로, 이중 심정지 건수는 6건에 달했다. 겨울철 캠핑 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7일 국립소방연구원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텐트 내 장작과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을 절대 삼가고 ▲가스, 등유 등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텐트 상부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우선 텐트 내 화로와 난방기구의 효과적인 설치 위치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텐트 내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발생 정도를 실험을 실시한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화로의 경우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으로 나타났다. 특히 돔 텐트 내에서는 화로에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후 불과 45초만에 500ppm에 도달했다. 일산화탄소 농도 400ppm에서는 1~2시간 후 두통이 발생하고, 1600ppm에서는 2시간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화롯대 등에서 사용한 목재·석탄류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텐트 내부 사용은 절대 삼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가스와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구의 경우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더 높았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 허용농도인 50ppm 미만으로 확인됐으나,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최대 4만5000ppm(공기 중 4.5%)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가 되면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하고, 5%에서는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며, 8%가 되면 의식불명과 사망 가능성이 높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일산화탄소 발생이 상대

적으로 적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다”며 “겨울철 텐트 내에서는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효과적인 설치 위치를 검토하는 실험 결과, 경보기를 상단(천장)에 설치했을 때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하단(바닥)에서 가장 반응이 늦었다. 일산화탄소는 단위부피 당 질량이 산소보다 작고 부력에 의해 상승하므로 텐트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립소방연구원 구동욱 원장직무대리는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텐트 상부에서 가장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적정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권기자

폭발적으로 늘어나 영광 안마도 점령한 사슴 무리 1985년 안마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어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1000여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발작물과 묘지를 파헤치고 밤에는 울음소리 소문 문제로 발생으로 섬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전남 우정본부 간부들, ‘조합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조합비 수천만원 빼돌려 사적 사용” 고발

우정노동조합 전남본부 간부들이 노조비를 수년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우정노조 전남본

부 간부들이 조합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전남 노조위원장 등 간부진이 최근 수년간 노조 발전 명목 지자체 보조금을

비롯한 조합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행사 지출 결의서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 관계부터 파악할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리관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